

비용의 효율화, ESG 전략 주효… 주가 25% 상승 ‘밸류업’

iM금융그룹

상반기 총 영업익 1.1조, 4.4% ↑
이자 이익 4.1%, 비이자 5.2% 성장
상반기 400억 자사주 매입·소각
하반기에도 300억 이상 진행 중

iM금융그룹의 ‘질적성장’ 전략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효율성 및 관리에 집중하면서 자기자본 이익률(ROE)을 비롯한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로 주주환원도 확대했다. ESG(환경·사회·경영구조) 경영에 중점을 둔 경영 전략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M금융지주의 종가(16일 기준)는 주당 1만7030원을 기록했다. 주가의 연간 상승률은 약 25.03%로, 지방에 본사를 둔 3개 금융지주(BNK·iM·JB) 가운데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4대 지주(신한·KB·하나·우리)를 포함한 7개 은행지주 가운데서는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iM금융은 지난해 3월 시종금융으로 재출범하며 ‘밸류업’을 주요 경영 목표로 제시했는데,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 ‘질적성장’ 우선…수익지표 개선

iM금융이 추진하는 ‘밸류업’ 전략의 핵심은 ‘질적성장’이다. 비용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매출 성장의 토대를 확보하고, 비은행 계열사의 적극적인 체질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iM금융

개선을 통해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수익성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iM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iM금융그룹의 그룹 총영업이익은 1조 1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4% 늘었다. 이자이익(8436억원)과 비이자이익(2654억원)이 각각 각각 4.1%, 5.2% 성장해 치우치지 않는 수익 성장을 기록했다.

상반기 말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4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록했던 7.29%와 비교해 2.14%포인트(p) 개선된 수치다.

자본 효율성 개선도 눈에 띈다. 올 상반기 iM금융그룹의 총자산규모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9.1% 늘었지만, 위험자산(RWA) 증가율은 1.7% 수준으로 관리됐다. 우량자산 중심의 저위험·고효율 내실 성

장에 집중하면서, 상반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CET1)도 12.27%까지 올랐다. 이는 그룹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다.

비은행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기여도는 30%대 중반을 기록했다.

◆ 주주환원 확대…‘ESG 경영’ 고도화

iM금융의 경영지표 개선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졌다. iM금융은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해 약 38.8%의 총주주환원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4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3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해 주주들의 실질 배당 혜택도 극대화했다.

적극적인 ‘ESG 경영’의 고도화도 밸류

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iM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총 8조원 규모의 ESG금융을 공급할 계획이 다. 2025년 말 기준 공급 실적은 약 5조8000억원으로, 목표의 72%를 조기 달성했다.

투명한 경영 구조 구축에도 힘쓴다. iM금융지주는 총 10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9명을 독립이사로 구성해 경영진의 견제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액주주라도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추천 제도를 활용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제고했다. 특히 지주 회장 승계 과정에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화주위가 참여하도록 해 경영승계의 투명성도 높였다.

◆ ‘밸류업’ 지속…목표치 조기달성

iM금융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총주주환원율 50%를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매출 성장세를 고려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5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목표 달성을 앞당긴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앞서 iM금융그룹 그룹재무총괄(CFO)은 지난 7월 말 실적발표 이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상반기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12.27%로 개선된 만큼, 연말까지 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1차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라며 “비과세

배당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밸류업의 지속을 위한 ‘책임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과 3월에만 약 1만주의 자사주를 시장가에 매입해 책임 경영과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병우 회장은 밸류업의 지속을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 내부통제 강화와 같은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외부 요구가 아닌, 동반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알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룹의 밸류업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대구 iM뱅크 제1본점.

/iM금융

청년미래적금 2차, 68.8만명 신청… 누적 282만명

금융위, 내달 13일까지 요건 심사
내달 16일~27일 기관별 개좌개설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기간 동안 총 68만8000명의 청년이 가입 신청을 제출했다. 1차 모집 당시 신청자를 합산한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약 282만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2차 모집 신청을 접수했으며, 2차 신청 기간 동안 총 68만8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했던 1차 가입 당시에는 234만 3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1차·2차 모두 가입신청을 제출한 중복 가입자는 약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차 가입신청 당시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가입이 거부됐거나, 심사 결과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승인됐으나 취급기관에서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가입 신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울러 금융위는 이번 2차 가입신청부터는 신청자가 직접 자신의 가입 유형을 선택하도록 지정했다. 유형별로는 55만 8000명이 일반소득자 가입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신청자는 10만 8000명, 소상공인 가입 신청자는 2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가 23만 300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 23

만 2000명(33.7%)가 뒤를 이었다. 30세 이상 가입 신청자는 22만 3000명(32.4%)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가입요건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자가 사전에 자신의 심사 결과를 비교 및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 직후에는 약 4일간 이의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취급기관별 계좌개설은 오는 11월 16~27일 진행한다. 가입은 각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 계좌개설 기간 이후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며 내년 상반기 진행될 3차 신청에

신규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2차 가입신청 결과 가입이 승인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승인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했던 금융기관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간 내에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했다라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이 불가해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치매 등 ‘무료보험’

금융위·복지부, 통합지원 업무협약

정부와 보험업권이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시니어를 위한 무료보험을 지원한다. 무료보험은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등 금융 지원과 헬스케어 등 비금융 지원을 포함한다. 취약계층 시니어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

최했다. 협약식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가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보호가 절실한 분들이 혜택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사업은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운 곳에 복지의 현장방으로 다가가고, 복지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보험으로 채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홀로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의 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공적 돌봄과 연계한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취약 어르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업권은 총 96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재원으로 출연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과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 두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을 통해 취약 어르신 총 57만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게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치료·화복비를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 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금융교육도 운영한다. 전화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을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운영은 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의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안승진 기자

하나은행 누적 퇴직연금 52조 증가액 ‘은행권 1위’

하나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52조 1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3조 7741억원 증가한 규모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3조 996억원,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이 1조 2931억원 증가하며 전체 적립금 확대를 이끌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증가액 1위를 유지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배경으로 대면 상담 채널 확대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전문 상담 채널인 ‘연금더드림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송도신도시에 이어 이달 아람역금융센터에도 신규 라운지를 개설한다.

상품과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 9월 상장지수펀드(ETF) 전용 모델포트폴리오(MP) 구독 서비스와 개인투자용 국제채 출시하고 비대면 장외채권 거래 시스템을 개설했다. 은행권 최초로 연금 인출기 전용 ‘보증형 실직배당보험’도 선보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관리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금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